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적용할 수 있는 方法論에 관한 考察(1)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韓醫學古典研究所²

朴修玄^{1,2} · 丁彰炫^{1,2} · 白裕相^{1,2} · 張祐彰^{1,2*}

A study on research methodology of the quoted verses in 『Donguisusebowon』 (1)

Park, Su-hyun¹ · Jeong, Chang-hyun¹ · Baik, You-sang · Jang, Woo-Chang^{1*}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 :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text in studying quoted verses in 『Donguisusebowon』.

Method : First, methodology applied in researches on 『Donguisusebowon』 quotations were organized. Nex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aforementioned methodology, several quoted verses were approached in such method.

Result : First, the verse, 'In cases of Dry-Feces(大便秘燥), *Rheum undulatum* Linne(大黃) could be used in the medicinal formulas and treatment, but not *Croton tiglium* Linne(巴豆)'. In the texts of Shanghanlun(傷寒論), Zhang, Zhongjing(張仲景) prescribed *Sammulbaeksan*(三物白散) in treating 'Gyeolhyung due to Excessive cold'(寒實結胸), which includes *Croton tiglium* Linne(巴豆). From this, we can see that Lee, jema's statement in 『Donguisusebowon』 is false.

Conclusion : Lee, jema's mistake was that he accepted Shanghanlun(傷寒論) as quoted in 『Donguibogam』, instead of the original text, accidentally quoting Heo, jun's source of reference.

Key Words : 『Donguisusebowon』, Quoted verse(引用文), Methodology, *Sammulbaeksan*(三物白散)

I. 緒 論

* 교신저자 :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Tel : 02-961-0735, jangchang@khu.ac.kr

접수일(2012년 2월 2일), 수정일(2012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2012년 2월 16일)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는 李濟馬가

저술한 『東醫壽世保元』 및 기타 저작들의 원형을 복구하는 작업과 함께 대체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東醫壽世保元』 引用문을 비교, 검토하며 考察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李濟馬의 견해를 李濟馬가 생각했던 원형에 가깝게 왜곡 없이, 그리고 심도 있게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研究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四象醫學界, 韓醫學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醫學界에 『東醫壽世保元』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보편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로 『東醫壽世保元』을 살펴보면 열거한 바와 같이 引用文 관련 研究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내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다소 극적인 예로서 甘草瀉心湯 條文을 살펴볼 수 있다.

甘草瀉心湯 條文은 醫學史上 張仲景이 기술한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후 많은 醫家들이 자신들의 醫書에 줄곧 引用해왔다. 그리고 李濟馬 또한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傷寒論』의 甘草瀉心湯 條文을 인용하였는데, 李濟馬는 다른 醫家들과 달리 條文에 포함된 여러 증상들 중 일부는 삭제하고 甘草瀉心湯證의 病機로 제시된 ‘此非結熱’은 ‘此乃結熱’로 수정하여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하였다¹⁾. 그런데 이러한 『傷寒論』 원문과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내용 간의 차이는, 『東醫壽世保元』을 이해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그 중 단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한 가지를 지적하면, 張仲景과 李濟馬가 인식한 甘草瀉心湯證의 病機가 ‘結熱’을 중심으로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李濟馬는 甘草瀉心湯 條文이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²⁾. 그리고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甘草瀉心湯 條文을 일회적으로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少陰人의 裏病 중 太陰病과 少陰病을 구분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또한 李濟馬는 甘草瀉心湯을 『東醫壽世保元』 處方 編制에 기술하면서 『傷寒論』에서 瀉心湯의 핵심 약물로 제시된 黃連을 삭제하여 기술하기도 하였다³⁾. 이와 같은 사실들은 李濟馬가 少陰人 裏病을 서술함에 있어 甘草瀉心湯 條文을 상당히 주요한 근거로서 활용했음을 나타내준다. 하지만 이처럼 『東醫壽世保元』 내에서 甘草瀉心湯 條文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李濟馬는 病機상 『傷寒論』과 크게 다른 ‘此非結熱’과 ‘此乃結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점은 甘草瀉心湯證과 같이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大承氣湯證의 경우 張仲景이 인식한 病機가 잘못되었음을 李濟馬가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전체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력했던 것과 비교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단지 甘草瀉心湯 條文에 대한 의구심에서 그치지 않고 甘草瀉心湯 條文을 근거로 한 少陰人 裏病 전반에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東醫壽世保元』에 甘草瀉心湯 條文의 ‘此非結熱’이 ‘此乃結熱’로 인용된 과정, 그리고 李濟馬가 실제로 ‘此乃結熱’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研究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四象醫學界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少陰人 裏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하더라도 당장 『傷寒論』을 중심으로 研究하는 학자들 및 韓醫學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東醫壽世保元』의 논리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혹자는 관점에 따라 李濟馬가 『東醫壽世

1) 『傷寒論』에 기술된 甘草瀉心湯 條文은 “傷寒中風, 醫反下之, 其人下利日數十行, 穀不化, 腹中雷鳴, 心下痞硬而滿, 乾嘔心煩不得安. 醫見心下痞, 謂病不盡, 復下之, 其痞益甚. 此非結熱, 但以胃中虛, 客氣上逆, 故使硬也, 甘草瀉心湯主之.”(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16.)이며,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甘草瀉心湯 條文은 “下後 下利日數十行 穀不化 腹雷鳴 心下痞硬 乾嘔心煩 此乃結熱 乃胃中虛 客氣上逆故也 甘草瀉心湯主之.”(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9.)이다.

2) 甘草瀉心湯은 『東醫壽世保元』 處方 編制 중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기술되어 있다.(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1. “甘草瀉心湯 甘草 二錢 乾薑 黃芩 各一錢五分 半夏 人參 各一錢 棗三枚”)
3) 李濟馬가 甘草瀉心湯을 『東醫壽世保元』에서 일회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筆者가 발표한 論文인 “朴修玄, 丁彰炫, 白裕相, 張祐彰.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의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에 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63-67.”을 참고하기 바란다.

保元』을 저술하던 과정에서 관련 서적들을 인용한 방식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의 의구심은 비단 『東醫壽世保元』의 몇몇 引用文들에 그치지 않고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으로 이와 달리 몇몇 연구자들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이처럼 원문과는 다른 내용의 引用文들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주장을 제시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 곧 既存 醫學의 관점과 구분되긴 하지만 李濟馬 스스로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東醫壽世保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학자들에게조차도 관련 研究와 그로 인해 얻어진 성과 없이는 『東醫壽世保元』이 지니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관련된 研究는 대내외적으로 『東醫壽世保元』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이해하고 인식시키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관련한 여러 研究들이 學界에 보고되어 왔다. 그리고 각각의 研究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세부적인 과정 및 이로 인해 얻어진 결론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기술된 引用文들은 病證論에 밝혀진 출전 보다는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하여 인용되었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의 동일하게 얻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간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관련된 研究들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된 점은 研究者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소 아쉽게도 현재까지 진행된 引用文 관련 研究들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研究 方法論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간 활용된 研究 方法論이 지니는 본질적인 限界로 인해 대체로 대동소이한 결론만이 반복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筆者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研究 方法論을 引用文 관련 研究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既存 研究가

지니는 方法論的 限界들을 극복하고 學界가 향후 더욱 깊이 있는 引用文 관련 研究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목적의식에 따라 본 論文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論文들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研究들에 어떠한 方法論이 적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얻어진 성과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의 研究들에 적용된 方法論이 지니는 한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진행된 引用文 관련 研究들에서 대체로 대동소이한 결론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대해 考察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筆者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에 적용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方法論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중 일부, 곧 三物白散과 巴豆, 抵當湯 條文과 赤石脂禹餘糧湯 條文, 甘草瀉心湯 條文에 筆者가 제시한 方法論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새로운 引用文 研究 方法論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筆者가 제시한 方法論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 方法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들 및 方法論 考察

1)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들

지금까지 學界에 발표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들을 발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論文은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중심으로)’⁴⁾로서 이 論文은 朴性植이 1993년에

學界에 발표한 論文이다. 여기서 저자는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밝혀진 引用文의 출전들을 근거로 하여 본래 해당 내용이 실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용 원서들에서 관련 원문들을 모두 추려낸 후,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인용된 내용들과 직접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저자는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중 『東醫寶鑑』에 실려 있는 해당 내용들도 함께 比較함으로써 考察을 진행하였는데, 이처럼 저자가 『東醫壽世保元』 집필 당시 李濟馬가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많은 문헌들 중 유독 『東醫寶鑑』만을 특별히 선택하여 별도로 비교, 분석한 까닭은 저자가 『東醫寶鑑』에도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이다⁵⁾.

이상의 方法을 통해 저자는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한 研究를 시행함으로써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인용된 문장들이 『內經』이나 『傷寒論』, 『活人書』, 『古今醫鑑』, 『醫學入門』 등의 원서 자체보다는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인용된 것임을 밝혔다⁶⁾.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저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선불리 李濟馬가 『東醫寶鑑』 이외에 다른 서적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⁷⁾.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저자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靈樞』와 『素問』에 대해 ‘醫家 格致之宗主 而苗脈之所自出也’⁸⁾라고 기술한 사실과, 『四象人 辨證論』에서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 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 而未盡精究也’⁹⁾라 하여 『靈樞』 第64篇인 『陰陽二十五人』과 第72篇인 『通天』의 내용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東醫寶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저자는 ‘東武는 素問, 靈樞, 傷寒論 등(물론 다른 서적도 포함될 수 있지만)을 熟知한 상태에서, 醫學的 經驗과 思想은 東醫寶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시각의 醫學인 東醫壽世保元을 著술하였다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살펴볼 論文은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研究’¹⁰⁾로서, 이 論文은 2000년에 學界에 발표된 李壽瓊의 論文이다. 여기서 저자는 『東醫壽世保元』 원문 아래 病證論에 기술된 출전에 근거하여 관련 원문을 함께 인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東醫寶鑑』에 실린 관련 내용들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내용 아래에 이에 대한 學界의 견해들과 자신의 견해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論文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한 研究’¹¹⁾로서, 이 論文은 이필우가 2004년에 學界에 발표한 論文이다. 여기서 저자는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실린 “因許浚東醫寶鑑所載 摘取張仲景傷寒論文及諸家所論 抄集一通別附疑難 以爲太少陰陽四象人傷寒時氣表裏病論”¹²⁾을 序文에 먼저 제시함으로써, 철저히 『東醫寶鑑』만을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한 比較 및 考察을 진행하였다. 한편, 저자는 李濟馬가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 藏厥을 논한 부분에서 『傷寒論』의 藏厥條文을 인용하지 않고 『東醫寶鑑』에 기술되어 있는 朱肱의 藏厥에 대한 논술을 인용한 것을 특징적으로

4)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3. 5(1).

5) 저자는 이러한 확신의 근거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한 내용들 가운데 『東醫寶鑑』 이후의 문헌이 인용된 것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중 본초에 대한 언급에서 인용된 문헌이 모두 『東醫寶鑑』 집필에 인용된 문헌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다.(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3. 5(1). p.8.)

6)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3. 5(1). p.32.

7)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3. 5(1). p.32.

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0.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731.

10) 李壽瓊.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11) 이필우, 尹暢烈.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4. 12(2).

12) 송일병 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 3권 2권.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200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p.2.

언급하였다¹³⁾. 그리하여 이를 근거로 저자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할 때 관련 내용들을 모두 『東醫寶鑑』에서 인용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藏厥에 관해 저자가 논증한 내용은 다른 論文들의 研究와 方法論적인 면에서 구분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醫史學적인 관점에서 볼 때 藏厥에 대한 논의는 『傷寒論』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藏厥에 대한 條文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張仲景이 기술한 『傷寒論』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 원문에 있는 藏厥에 대한 條文을 인용하지 않고, 『東醫寶鑑』에 기술된 藏厥에 대한 朱肱의 논술을 인용하여 少陰人의 藏厥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함께 『東醫壽世保元』의 중심 인용 서적인 『東醫寶鑑』 『寒門』에서 藏厥에 대해 서술된 ‘傷寒藏厥’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도 공교롭게 『傷寒論』의 藏厥 條文이 없이 朱肱과 李梴이 藏厥에 대해 논술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¹⁵⁾. 뿐만 아니라 『東醫寶鑑』 전체를 통틀어 살펴보아도 『傷寒論』에 기술된 藏厥 條文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저자는 李濟馬가 모든 『東醫壽世保元』 引用文들을 許浚의 『東醫寶鑑』에서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傷寒論』에 기술된 藏厥 條文을 인용하고자 해도 인용할 수 없었고 『東醫寶鑑』에 기술된 대로 朱肱과 李梴의 논술을 통해 藏厥에 대해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증명 방식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東醫寶鑑』의 원문에 대한 문자적인 비교에 그치지 않고, 醫史學적인 관점에 입각해

내용적인 면과 서술된 맥락을 고려하여 考察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引用文 관련 研究에 적용된 方法論과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論文은 ‘『東醫壽世保元』의 仲景 引用文에 관한 研究 - 조문일치도 및 병증 비교를 중심으로’¹⁶⁾로서, 이 論文은 허기희가 2004년에 學界에 발표한 論文이다. 여기서 저자는 앞서 살펴본 박성식과 이수경의 論文 및 기타 研究들을 토대로 하여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중 仲景引用文, 곧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내용들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직접 인용된 것인지, 혹은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 인용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저자는 引用文과 원문을 비교함에 있어 ‘완전 일치’, ‘거의 일치’, ‘부분 일치’, ‘합성 條文’, ‘없는 條文’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條文 일치도를 분류함으로써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傷寒論』 및 『金匱要略』의 원문들을 좀 더 정밀하게 比較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기에 『東醫壽世保元』의 내용과 學界에서 논의되어 온 『傷寒論』, 『金匱要略』에 대한 견해들을 比較, 考察하였는데, 이를 통해 저자는 『東醫壽世保元』의 仲景引用文은 『傷寒論』이나 『金匱要略』 보다는 『東醫寶鑑』을 底本으로 하였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¹⁷⁾.

2) 既存의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들에 적용된 方法論 考察 및 새로운 方法論의 필요성 제기

이상 현재까지 진행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研究들에 대체로 유사한 方法論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引用文의 출전으로 밝혀진 원서, 혹은 『東醫寶鑑』에 실린 해당 내용을 ‘문자적으로’ 비교한 후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考察을

13) 이필우, 尹暢烈.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4. 12(2). p.84.

14)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096. “厥有藏厥蚘厥 ○ 躁無暫定而厥者, 爲藏厥「活人」 ○ 藏厥者, 發躁無休息時且發熱, 七八日, 脈微膚冷而躁, 或吐或瀉, 無時暫安者, 乃厥陰眞藏氣盡, 故曰藏厥. 仲景無治法, 四逆湯冷飲救之. 又, 少陰厥而吐利發躁, 亦不治, 三味參黃湯救之. 「入門」.”

15) 이필우, 尹暢烈.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4. 12(2). pp.76-77.

16) 허기희. 『東醫壽世保元』의 仲景引用文에 관한 研究 - 조문 일치도 및 병증 비교를 중심으로. 尙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04.

17) 허기희. 『東醫壽世保元』의 仲景引用文에 관한 研究 - 조문 일치도 및 병증 비교를 중심으로. 尙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04. p.113.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본래 출전에 해당하는 서적의 원문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명확하게’ 비교하고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引用文 관련 研究 분야에서 수고롭지만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方法論을 통해 도출된 결론, 곧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본래 출전으로 제시된 서적의 원문보다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인용되었다는 것은 引用文 研究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引用文 관련 研究들의 결론을 살펴보면 대체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도출 및 재확인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대체로 동일한 결론이 계속적으로 도출된 까닭은, 관련 研究들에 적용된 方法論이 별다른 차이 없이 내적으로 사실상 거의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현재까지 적용되었던 引用文 관련 研究 方法論이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그것이 본래 기술되어 있던 서적의 원문, 그리고 『東醫寶鑑』에 실린 해당 내용들을 각각의 글자별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의 목적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면서 인용한 내용들이 해당 내용의 본래 출전으로 밝혀진 서적들과 『東醫寶鑑』 중 어떠한 서적들에 가장 일치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정리함으로써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나는 서적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장 비중 있는’ 인용 서적을 가려내는 데에 있으며, 學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이러한 서적을 ‘중심 인용 문헌’으로 命名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박성식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東醫寶鑑』에는 없이 인용 원서에서만 확인되는 경우가 없으며, 病證論에 제시된 출전과는 다른 서적에서 확인되면서 『東醫寶鑑』에서도 역시 확인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¹⁸⁾. 또한 이필우도 자신의 論文에서 『東醫壽

世保元』에 인용된 문장은 모두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¹⁹⁾.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研究者들은 최종적으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본래 출전으로 제시된 서적의 원문보다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인용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은 研究者로 하여금 단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함에 있어 『東醫寶鑑』을 중심인용문헌으로 삼았다는 결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실상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전체를 『東醫寶鑑』에서 인용했다는 강력한 心證을 갖게 한다²⁰⁾.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중 출전 원서로 기술된 서적에 해당 내용이 발견되지 않지만 『東醫寶鑑』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모두 『東醫寶鑑』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전체를 『東醫寶鑑』에서 인용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전체를 『東醫寶鑑』에서 인용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東醫寶鑑』을 중심인용문헌으로 삼아 『東醫壽世保元』을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용된 研究 方法論은 전체적으로 향후 진행될 研究에 있어 研究者가 세울 수 있는 가설 중 가장 강력한 가설을 선별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앞선 研究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은 여러 서적 중 『東醫寶鑑』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치도로 나타나며, 빈도수로 판단해 보아도 다른 서적들과 비교할 때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분석

思想에 대한 研究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중심으로). 1993. 5(1). p.26.

19) 이필우, 尹暢烈.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4. 12(2). p.84.

20) 실제로 이필우는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중 藏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기술할 때 모두 『東醫寶鑑』에서 관련 내용들을 인용하여 기술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어질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8)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비중’의 문제, 곧 引用文이 특정 서적에 기술되어 있을 확률이나 분포 정도, 혹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해당 서적에 기술되어 있는 원문의 일치 정도만을 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얻어낸 결과는 研究者들이 비율이나 정도 및 확률에 근거하여 引用文 研究에서 가능한 여러 가설들 중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을 ‘선별’해낼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사안 및 가설의 是非를 명확히 ‘결정’하여 ‘확증’할 수 있게 해주진 못한다. 왜냐하면 是非를 가리고 확증을 내리는 것은 비중이나 확률, 일치 정도도써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是非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도구, 곧 내용이 기술된 ‘맥락’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 가설의 是非를 검증한 후 확증하고자 한다면, 단지 문자와 문자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방식, 곧 외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선 각각의 내용과 맥락을 중심으로 引用文에 대한 논리적인 考察을 진행하는 방식, 곧 내적인 기준을 통한 분석을 진행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물론 문자적인 比較 研究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이 예외 없이 모두 일관성을 지닐 경우, 단순히 研究者가 제시할 수 있는 가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준을 넘어 확증까지 이르진 못하더라도 사실상 그러한 가설이 실제로 성립함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²¹⁾. 또한 研究者가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研究를 진행한다 하여도 전체 범위 안에 포함된 각각의 내용 ‘모두’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특정한 주장이 모든 부분에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결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研究는, 그것이 가능한 경우 문자적인 研究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확정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는 문자적인 비교 研究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속성으로서, 비록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만 활용될 수 있긴 하지만 문자적인 비교 研究를 통해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研究는 문자적인 비교 研究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기도 한다. 이는 문자적인 비교 研究가 ‘引用文의 출전과 원문’, 그리고 ‘일치도’라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응용되기에는 명백한 제약이 존재하는 기준들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반면,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研究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속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내용과 문맥’이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다양하며 대상에 대한 제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활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문자적인 比較 研究는 대체로 『東醫壽世保元』 인용 과정에 대한 研究에만 국한되는 반면,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研究는 그 자체로 문자적인 比較 研究를 넘어 『東醫壽世保元』 내의 독자적인 주제에 대한 研究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東醫壽世保元』에 대한 이해를 더욱 폭넓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문자적인 比較 研究는 다소 넓은 범위로서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내용적인 研究는 특정 사안과 관련된 다소 좁은 범위에서 是非를 가려냄으로써

21) 엄밀히 말해 현재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박성식 및 이필우가 정리한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은 모두 『東醫寶鑑』에서 발견된다. 또한 앞서 진행된 문자적인 比較 研究들에서는 『東醫壽世保元』 引用文들이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밝혀진 출전에 해당하는 서적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東醫寶鑑』에는 실려 있으며, 『東醫寶鑑』에는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실려 있지 않으면서 病證論에 출전으로 밝혀진 서적에만 실려 있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까지도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이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예외가 없는 평정히 뚜렷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를 통해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기술함에 있어 『東醫寶鑑』을 중심 인용 문헌으로 삼았다’이지만, 사실상 이필우가 제기한 바와 같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기술할 때 모두 『東醫寶鑑』에서 인용하였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본 論文에서는 추후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을 밝힌다.

특정 가설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두 가지 方法論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있어 말 그대로 名과 實이 相符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筆者의 관점에서 볼 때 먼저는 문자적인 비교 研究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한 후 가능한 여러 가설 중 가장 강력한 가설을 추려내면, 이후에는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研究를 진행함으로써 선택한 가설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방식으로 引用文 관련 研究를 진행하는 것이 研究 순서상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筆者는 지금까지 문자적인 比較 研究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지금부터는 引用文의 전후 맥락과 내용을 논리적으로 考察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筆者가 강조하고 있는 方法論, 곧 引用文의 전후 맥락 및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考察을 진행하는 方法은 이전의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서 시도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전에 진행된 研究에서는 이와 같은 方法論이 충분히 잘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論文의 저자 중 한 사람인 이필우는 藏厥에 관해 내용적인 考察을 진행함으로써, 李濟馬가 『東醫寶鑑』을 중심 인용 문헌으로 삼아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기술했다는 결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東醫壽世保元』을 기술할 때 모두 『東醫寶鑑』에서 관련 내용들을 인용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筆者가 본 論文에서 강조하고 있는 研究 方法論, 곧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研究를 진행하였다. 이 내용은 앞선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이지만, 論文의 매끄러운 전개를 위해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藏厥에 대한 내용은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할 때 『傷寒論』의 내용이 아닌 朱肱과 李梴의

논술로써 藏厥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東醫寶鑑』 또한 『東醫壽世保元』과 마찬가지로 藏厥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傷寒論』의 내용이 아닌 朱肱과 李梴의 논술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東醫寶鑑』 어디에도 『傷寒論』 원문을 통해 藏厥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저자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의 모든 引用文들을 許浚의 『東醫寶鑑』에서 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필우의 주장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모두 『東醫寶鑑』에서 확인된다는 사실, 곧 문자적인 비교 研究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전제로 하여 제기된 것이다. 즉 앞서 筆者가 정리한 바와 같이 문자적인 비교 研究 결과가 선행된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藏厥에 대한 醫史學적인 맥락 및 『東醫寶鑑』 내에 존재하는 藏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기된 이필우의 주장에는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필우가 제시한 근거와 같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藏厥에 대해 서술하면서 『傷寒論』의 藏厥에 대한 條文을 인용하지 않고 朱肱의 藏厥 條文을 인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기술할 당시 『東醫寶鑑』에서 모든 引用文을 취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증명방식은 본질적으로 사안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반증에 해당하며, 반증은 그 속성상 가능한 여러 해석 중 하나를 다소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을 뿐 是非를 명확히 가려 확증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이 갖는 한계를 실제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藏厥에 대한 朱肱의 논술에 이어 李梴의 논술을 함께 인용하였는데, 李梴의 논술 안에는 ‘중경의 책에는 장결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²²⁾. 따라서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藏厥에 대해 논술할

2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62-663. “李梴曰 藏厥者 發躁無休息時 發熱七八日 ... 故曰藏厥 仲景 無治法而四逆湯 冷飲救之”

당시 『傷寒論』에도 藏厥에 대한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李濟馬는 『醫源論』에서 醫道始興과 中興, 그리고 復興에 대해 얘기할 때 張仲景을 醫道始興으로 꼽고 李梴은 醫道復興으로 꼽았는데²³⁾, 이를 통해 李濟馬는 張仲景의 『傷寒論』이 李梴의 『醫學入門』에 비해 시대적으로 월등히 앞서는 저작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정리하면, 결국 李濟馬는 藏厥이라는 病에 있어 張仲景의 『傷寒論』에 기술된 藏厥 條문이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내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張仲景의 藏厥에 관한 論을 인용하지 않고 朱肱 및 李梴의 論을 인용한 까닭은 이필우의 견해와 같이 李濟馬가 『東醫寶鑑』에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모두 인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藏厥에 대한 朱肱 및 李梴의 論술이 張仲景의 그것보다 더욱 실제에 부합한다고 李濟馬 스스로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張仲景이 아닌 朱肱의 論술을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傷寒論』에 기술된 藏厥에 대한 條文은 ‘傷寒脈微而厥，至七八日膚冷，其人躁無暫安時者，此爲藏厥²⁴⁾인데, 이 내용에 따르면 藏厥은 傷寒에 脈이 微하면서 厥한지 7일에서 8일에 이르러 皮膚가 차면서 躁가 시작되는 病證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藏厥에 대한 李梴의 論술인 ‘藏厥者 發躁無休息時 發熱七八日 脈微 膚冷而躁 或吐或瀉 無時暫安者²⁵⁾를 근거로 藏厥에 대해 살펴볼 경우²⁶⁾, 『傷寒論』의 藏厥 條文과 달리 ‘發熱’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내용상 차이가 나는 ‘發熱’은, 『傷寒論』 전체에 걸쳐 진단과 해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증상이다. 따라서 李濟馬는 張仲景이 藏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傷寒論』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發熱’을 함께 언급한 李梴의 論술이 더욱 실제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 張仲景의 論술 대신 李梴의 論술을 인용하여 藏厥에 대해 서술하고, 李梴의 論술에 빠져있는 손발이 싸늘한 증상, 곧 ‘厥’에 대한 서술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朱肱의 論술을 李梴의 그것 바로 앞에 인용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보충하여 藏厥에 대한 내용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²⁷⁾.

厥者 爲藏厥.”(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62.)로서, 이 내용은 藏厥의 구체적인 病機 및 진행 과정에 대한 論술이 아닌 藏厥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는 『傷寒論』의 藏厥에 대한 條文과 내용적으로 대응이 되는 『東醫壽世保元』의 藏厥에 대한 論술을 서로 比較, 考察하고자 하였고 하였고 때문에 李濟馬가 朱肱의 論술 다음에 인용했던 李梴의 論술을 중심으로 考察하였음을 밝힌다.

- 27) 실제로 앞서 藏厥에 대한 李梴의 論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仲景의 책에는 藏厥을 치료하는 法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李梴의 論술에는 이證에 환자에게 四逆湯을 차게 복용시켜서 치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62-663. “李梴曰 藏厥者 ... 故曰藏厥 仲景 無治法而四逆湯 冷飲救之”) 또한 李梴의 論술에는 비록 『傷寒論』에서 藏厥의 범주로 제시한 厥陰病이 아닌 少陰病에 해당하는 病證이긴 하지만, 藏厥과 증상이 유사한 病證에 三味蓼黃湯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다고도 기술되어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62-663. “李梴曰 藏厥者 ... 故曰藏厥 仲景 無治法而四逆湯 冷飲救之又少陰病 厥而吐利發躁者 亦不治而三味蓼黃湯 救之.”) 따라서 仲景의 권위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본다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증상에 대한 서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藏厥의 治療法을 제시하지 못한 仲景의 論술보다 실제 치료한 경험이 있는 李梴의 論술을 더욱 신뢰하는 것은 일면 당연할 수 있다. 곧, 仲景 이후 있어진 藏厥에 대한 논의를 李梴이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실제로 藏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仲景이 제시하지 못한 藏厥의 증상과 치료법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張仲景의 권위를 인정하여 張仲景이 藏厥에 대해 論술한 내용을 李梴의 論술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李梴이 치료했다고 기술한 藏厥은 엄밀히

2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袁周秦以來 扁鵲有名 而張仲景 具備得之始爲成家著書 醫道始興 張仲景以後 南北朝隋唐醫 繼之而至于宋 朱肱 具備得之 著活人書 醫道中興 朱肱以後 元醫 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 繼之而至于明 李梴 龔信 具備得之 許浚 具備得之 著東醫寶鑑 醫道復興”

24)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71.

2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62-663.

26)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寒病論』에 인용한 藏厥에 대한 朱肱의 論술은 “朱肱曰 躁無暫定而

이상 考察한 내용들을 통해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藏厥에 대한 引用文들은 이필우가 제기한 주장과 같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모두 『東醫寶鑑』에서 가져왔다는 주장 이외에 다른 가설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필우의 가설 외에 다른 가설로도 동의수세보원의 장귀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까닭은, 현실적으로 볼 때 외적인 면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시작해 동일한 결론 및 결과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비단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물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안에 대한 집중을 환기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사안을 명확히 증명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東醫壽世保元』의 藏厥에 대한 내용과 『東醫寶鑑』의 藏厥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공고롭게 일치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筆者가 본 論文에서 강조하고 있는 研究 方法, 곧 引用文의 내용적인 면을 통해 考察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미 이전에 문자적인 비교 研究와 함께 시도된 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筆者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是非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문자적인 비교 研究를 거쳐 얻어진 결론 이상의 심화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진행될 引用文 관련 研究에서 활용될 수 있는 方法論의 端初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러한 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향후 引用文 관련 研究에 있어서는 내용과 전후의 맥락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논리적인 분석들을 통해 是非를 가려낼 수 있는 研究 方法論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方法論을 통해 이전 研究들에서 밝히고자 했던 내용들을 좀 더 명확히 考察해내는 것, 그리고 기존의 引用文 관련 研究와 별개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통해 기존의 『東醫壽世保元』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하는 것이 향후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한다.

2.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로 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의 실제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既存의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에 활용되었던 方法論을 중심으로 考察을 진행하였다. 이제부터는 筆者가 강조하고 있는 方法論, 곧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로 研究를 진행하는 방식이 실제 引用文 研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필자가 강조하는 研究 方法論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1) 秦漢時代 醫方治法과 巴豆에 관한 李濟馬의 논술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秦漢時代의 醫方治法에는 大便秘燥에 大黃으로 다스리는 法은 있었지만 巴豆로 다스리는 法은 없었으며, 이로 인해 張仲景 또한 大便秘燥에 巴豆를 사용하지 못하고 大黃이 포함된 大承氣湯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²⁸⁾.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 張仲景이 언급한 藏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李樞 스스로 밝혔듯이 『傷寒論』에는 藏厥에 대한 治法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李樞이 치료한 藏厥은 治療法이 있는 藏厥로서 엄밀히 말해 治療法이 없는 藏厥, 곧 張仲景이 논술한 藏厥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더욱 엄밀히 분석해보면, 仲景은 『傷寒論』에서 藏厥에 대한 治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또한 '死'라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仲景과 李樞의 논술이 반드시 대치되는 것은 아니며, 절충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 考察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張仲景과 李樞의 논술 중 누구의 견해를 인정할 것인지, 혹은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하여 인식할 것인지는 모두 독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8) 張仲景이 활동한 시대는 後漢 末期이다. 따라서 張仲景이 저술한 『傷寒論』과 『金匱要略』 또한 당연히 後漢時代 및

설명하면, 李濟馬는 張仲景이 少陰人의 鬱狂證이 발생한 초기에 바로 巴豆를 사용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鬱狂證의 극한 상황, 곧 大承氣湯의 적응증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에 大承氣湯을 사용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張仲景의 법은 鬱狂證의 치료가 大承氣湯을 사용해야할 정도의 극한 상황으로 진행될 때까지 지체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결국 이로써 大承氣湯을 사용한 후에 脈이 弦한 사람은 살고 脈이 澁한 사람은 죽게 되는 이치가 있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²⁹⁾.

그런데 이와 같은 李濟馬의 논술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 바로 秦漢時代의 醫方治法에는 大便秘燥에 巴豆로 다스리는 법이 없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실제로 張仲景의 『傷寒論』에는 巴豆가 포함된 三物白散으로³⁰⁾ 寒實結胸을 치료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¹⁾.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서 寒實結胸에 대해 논하면서 이 證에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三物白散을 사용하도록 주문했었다는 점이며³²⁾, 둘째는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處方編制 중 하나인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三物白散을 기술하면서 三物白散의 구성에 명백히 巴豆를 포함시켜 제시했다는 점이다³³⁾³⁴⁾.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집필할 당시 寒實結胸과 이에 대한 處方으로서 巴豆가 포함된 三物白散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濟馬는 상당히 모순적이게도 秦漢時代에 巴豆를 통해 大便秘燥를 치료하는 법이 없었다고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李濟馬가 지극히 순간적인 실수나 일회성 착각으로 이와 같이 서술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秦漢時代의 醫方治法에는 大便秘燥에 巴豆를 쓰는 법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임을 나타낸다³⁵⁾. 그럼 지금부터 李濟馬가 秦漢

그 이전의 醫術들이 종합되어 구성된 서적에 해당한다. 또한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도 神農과 黃帝 이후부터 秦漢時代 이전의 醫學을 張仲景이 전하였다고 기술하였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蓋自神農黃帝以後 秦漢以前 病證藥理 張仲景傳之”) 그러므로 李濟馬는 실제로 張仲景이 秦漢時代의 醫方治法에 따라 少陰人의 鬱狂證에 巴豆를 사용하지 못하고 大承氣湯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2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52-653. “論曰 秦漢時醫方治法 大便秘燥者有大黃治法 無巴豆治法 故 張仲景 亦用大黃大承氣湯治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其人澁然微汗出胃中燥煩實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晡發潮熱不惡寒狂言如見鬼狀之時而用之則神效 若劇者 發則不識人循衣摸床惕而不安微喘直視 用之於此則脈弦者生脈澁者死 蓋此方 治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 不大便五六日晡發潮熱者可用而其他則不可用也.”
- 30)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08. “白散 桔梗 三分 巴豆 一分去皮心熬黑研如脂 貝母三分”
- 31)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08. “病在陽, 應以汗解之, 反以冷水瀉之, 若灌之, 其熱被劫不得去, 彌更益煩, 肉上粟起, 意欲飲水, 反不渴者, 服文蛤散. 若不差者, 與五苓散. 寒實結胸, 無熱證者, 與三物小陷胸湯, 白散亦可服.”

- 3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64. “糞信曰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 論曰 右證 常用桂枝半夏生薑湯 赤白何烏寬中湯 三物白散 或用巴豆丹”
- 3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6. “三物白散 桔梗 貝母 各三錢, 巴豆去皮心熬研如脂 一錢”
- 34) 李濟馬는 이전에 醫學界에서 통용되었던 處方을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할 때 대체로 『東醫寶鑑』에 기술된 處方 구성을 그대로 인용하였지만, 특정 病證에 대한 기존 醫學界의 관점과 자신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病證에 사용하는 處方 구성을 수정 및 삭제하여 인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예로 甘草瀉心湯을 들 수 있는데,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의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甘草瀉心湯을 인용하면서 『傷寒論』에서 瀉心湯의 주제로 삼았던 黃連을 삭제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李濟馬가 甘草瀉心湯의 구성을 수정하여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했던 까닭은 張仲景이 제시한 法, 곧 黃連을 통해 瀉心하는 治法으로는 甘草瀉心湯證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朴修玄, 丁彰炫, 白裕相, 張祐彰,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의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에 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64-67.”을 참고하기 바란다.
- 35)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寒實結胸 條文과 三物白散을 근거로 하여 이 證이 結胸이 아닌 心下痞滿에 해당하는 證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처럼 仲景이 『傷寒論』에서 ‘結胸’으로 제시한 이후 한 번도 心下痞滿으로 의심받은 적이 없었던 내용을 李濟馬가 心下痞滿이라 주장한 것을

時代의 醫方治法과 巴豆에 대해 이같이 논술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 寒實結胸 條文을 인용하면서 ‘仲景曰’이 아닌 ‘龔信曰’을 서두에 제시함으로써 이 條文의 출전이 『傷寒論』이 아닌 『古今醫鑑』임을 밝혔다³⁶⁾. 이처럼 李濟馬가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寒實結胸 條文을 ‘仲景曰’이 아닌 ‘龔信曰’로 기술한 까닭은, 李濟馬가 『東醫寶鑑』 『寒門』에서 寒實結胸 條文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東醫寶鑑』에 기술된 『古今醫鑑』이란 출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술했기 때문이다³⁷⁾³⁸⁾. 이러한

사실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寒實結胸 條文이 『傷寒論』의 그것에 수정을 가하여 제시된 내용이며, 이와 같이 수정된 寒實結胸 條文이 『東醫壽世保元』에서 출전으로 제시된 『古今醫鑑』 및 기타 醫書들에서 발견되지 않고³⁹⁾ 『東醫寶鑑』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⁴⁰⁾⁴¹⁾. 그런데 李濟馬가 『東醫

二錢五分 瓜蒌大者 四分之一”) 그러므로 李濟馬는 寒實結胸에 대해 기존의 結胸과 다른 心下痞滿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 寒實結胸 條文에서 小陷胸湯을 삭제하여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실제로 『東醫壽世保元』에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寒實結胸 條文외에도 李濟馬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引用文 중 일부를 삭제 및 수정하여 引用한 경우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李濟馬가 『傷寒論』의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을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하는 과정에서 張仲景이 제시한 ‘理中者, 理中焦, 此利在下焦’를 삭제하여 引用한 것이 있다. 여기서 李濟馬가 張仲景이 제시한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을 이처럼 삭제하여 引用했던 까닭은, 李濟馬가 張仲景이 제시한 芩連湯을 기준으로 하여 赤石脂禹餘糧湯證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三陰三陽을 기준으로 赤石脂禹餘糧湯證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또한 李濟馬가 寒實結胸에서 小陷胸湯을 삭제하고 引用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자신만의 견해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朴修玄, 丁彰炫, 白裕相, 張祐彰.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의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에 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58-61.’을 참고하기 바란다.

볼 때,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집필할 당시 寒實結胸 條文 및 三物白散에 대해 굉장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볼 때에도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三物白散과 관련해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기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64. “龔信曰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

37)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2.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小陷胸湯. 『醫鑑』”

38) 李濟馬가 『東醫寶鑑』에 기술된 寒實結胸 條文을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하면서 三物白散과 함께 處方으로 제시된 小陷胸湯은 삭제하고 三物白散만을 인용했던 까닭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사료된다. 李濟馬는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 寒實結胸 條文을 인용한 직후, 寒實結胸은 病證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結胸’이 아니며 실제로는 ‘心下痞滿’으로서 少陰人의 病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64. “少陽人病 心下結硬者 名曰 結胸病 其病可治也 少陰人病 心下結硬者 名曰 藏結病 其病 不治也 醫學綱目 醫鑑所論水結胸 寒實結胸證藥 俱是少陰人太陰病 而與張仲景 茵陳蒿湯證 相類則此病 想必非眞結硬於心下而即痞滿於心下者也”)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일 李濟馬가 寒實結胸 條文에 三物白散과 함께 小陷胸湯을 인용할 경우, 李濟馬가 이 病證의 실제로 제시한 心下痞滿에 대한 근거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李濟馬의 견해 자체가 존립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李濟馬는 小陷胸湯을 小陷胸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處方으로서 心下痞滿이 아닌 실제 結胸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脾受寒裏寒病論』에서 少陽人의 結胸病에 대해 서술하면서 小陷胸湯이 포함된 小陷胸 條文을 인용하였으며,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3. “小陷胸 正在心下 按之則痛 宜小陷胸湯 論曰 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 小陷胸湯을 少陽人의 處方 編制 중 하나인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에 기술하였다.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98. “小陷胸湯 半夏製 五錢 黃連

39)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3. 5(1). pp.19-20.’에서도 『東醫壽世保元』에 실린 寒實結胸 條文이 『古今醫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또한 이 내용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醫道始興과 中興, 復興의 공을 돌리면서 언급한 醫家들의 서적인 『傷寒論』과 『活人書』, 『古今醫鑑』과 『醫學入門』에서도 모두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李濟馬가 寒實結胸 條文을 『東醫寶鑑』에서 직접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0) 許浚이 寒實結胸과 관련하여 실제 『古今醫鑑』에 존재하지 않는 條文을 『東醫寶鑑』에 인용한 후 寒實結胸 條文의 출전을 ‘仲景’이 아닌 ‘金鑑’으로 밝힌 까닭은, 許浚이 寒實結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龔信을 차용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東醫寶鑑』에 인용되어 있는 寒實結胸 條文은 『傷寒論』의 그것과 내용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傷寒論』의 寒實結胸 條文은 “寒實結胸, 無熱證者, 與三物小陷胸湯, 白散亦可服.”(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08.)이다. 여기서 處方에 관한 논술이 해석상 다소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寒實結胸 條文의 處方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醫史學的으로 몇 가지 관점들이 존재

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해석 중 한 가지를 제시하면, 柯琴은 寒實結胸 條文의 ‘三物小陷胸湯’이 곧 ‘白散’을 의미한다고 하였다.(柯琴 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245. “三物小陷胸湯者, 卽白散也, 以其結硬不甚痛, 故亦以小名之. 以三物皆白, 欲以別于小陷胸之黃連, 故以白名之.”) 따라서 柯琴의 해석을 따르면 寒實結胸 條文에서 小陷胸湯은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바로 ‘寒實結胸에는 三物白散을 사용한다’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寒實結胸 條文을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小陷胸湯’으로 제시함으로써 三物白散과 小陷胸湯의 두 處方으로 각각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이는 許浚이 寒實結胸에 小陷胸湯과 三物白散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寒實結胸 條文을 인용한 직후, ‘열실결흉과 한실결흉에 『活人書』에서는 한열에 상관없이 함홍탕만을 쓴 뒤, 그래도 낫지 않을 때는 지실이중환을 썼다. 약을 쓰면 바로 나왔다.’(許浚 著. 대한형상의학회. 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p.1099)는 내용을 『醫學綱目』에서 인용하였다.(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2. “熱實結胸, 及寒實結胸, 活人書不拘寒熱, 但用陷胸湯, 不差用枳實理中丸, 應手而愈.”綱目”) 그런데 이와 같은 『醫學綱目』의 논술은 寒實結胸에 三物白散과 小陷胸湯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 근거가 된다. 곧, 三物白散은 『傷寒論』에서 본래 寒實結胸에 쓰도록 주문한 處方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며, 『醫學綱目』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熱實結胸과 寒實結胸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陷胸湯을 쓸 수 있기 때문에 寒實結胸에도 三物白散과 함께 小陷胸湯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許浚은 이를 근거로 寒實結胸 條文의 ‘三物小陷胸湯’을 三物白散과 小陷胸湯의 두 處方으로 각각 나누어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許浚이 龔信을 빌어 『古今醫鑑』에 존재하지 않는 寒實結胸 條文을 기술한 까닭은 『傷寒論』의 寒實結胸 條文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41) 『東醫寶鑑』에는 ‘內景篇’의 ‘胸門’과 ‘雜病篇’의 ‘寒門’에 寒實結胸에 대한 내용이 각각 실려 있다. 그리고 ‘胸門’에 실린 내용은 출전이 ‘入門’으로 밝혀져 있으며,(동의과학연구소. 東醫寶鑑 外形篇.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8. p.1088. “寒實結胸者, 身不熱, 口不渴, 只心中脹硬而痛, 無熱證, 宜枳實理中丸 方見上. 甚者, 三物白散 方見寒門 [入門]”) ‘寒門’에 실린 논술은 출전이 ‘醫鑑’으로 밝혀져 있다.(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2.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小陷胸湯. 『醫鑑』”) 따라서 李濟馬가 『東醫寶鑑』에서 寒實結胸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龔信의 논술이 아닌 李樅의 논술을 인용할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李濟馬는 李樅이 아닌 龔信의 논술을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서 寒實結胸이 ‘結胸’이 아닌 心下의 ‘痞滿’일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結胸과 痞滿의 차이는 단지 ‘痞硬’의 유무 뿐만 아니라 ‘痛’의 유무로써도 구분된다. 이는 『傷寒

寶鑑』을 통해 인용한 寒實結胸 條文은 본래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었다. 따라서 만일 李濟馬가 寒實結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했다면, 출전이 『古今醫鑑』으로 기술된 寒實結胸 條文을 『東醫寶鑑』에서 인용하기 보다는 해당 내용이 최초로 기술된 『傷寒論』에서 寒實結胸 條文을 인용하는 것이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李濟馬는 寒實結胸 條文을 『傷寒論』이 아닌 『東醫寶鑑』에서 인용하면서 실재하지도 않는 龔信의 논술임을 밝혔다.

게다가 李濟馬는 三物白散이 본래 『傷寒論』의 處方임에도 불구하고 三物白散을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處方 編制 중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이 아닌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서 『醫學入門』의 處方으로 기술하였다⁴²⁾. 이처럼 李濟馬가 三物白散을 『傷寒論』의 處方이 아닌 宋元明 時代의 處方으로 기술한 까닭은 三物白散이 『東醫寶鑑』에서 『傷寒論』이 아닌 『醫學入門』의 處方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⁴³⁾⁴⁴⁾. 곧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論』에도 제시된 바이며, 許浚 또한 『東醫寶鑑』에서 ‘胸痞胸滿而不痛者, 爲痞, 滿而痛者, 爲結胸’(동의과학연구소. 東醫寶鑑 外形篇.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8. p.1060.)이라 하여 結胸에 ‘痛’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李濟馬 또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寒實結胸에 대한 龔信과 李樅의 논술을 비교해보면, 龔信의 논술에는 단지 ‘無熱證者’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李樅의 논술에는 ‘心中脹硬而痛’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곧, 李樅이 寒實結胸에 대해 논술한 내용에는 李濟馬의 견해와 대치되는 내용인 ‘痛’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李濟馬는 寒實結胸에 대해 結胸이 아니라 痞滿일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 『東醫寶鑑』에서 李樅의 논술이 아닌 龔信의 논술을 인용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 4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6. “三物白散 ... 如意丹 ... 右二方 出於李樅醫學入門書中”
- 43) 『東醫寶鑑』에 제시된 三物白散의 출전 또한 『東醫壽世保元』에서 기술된 것과 마찬가지로 『傷寒論』이 아닌 ‘入門’으로 밝혀져 있다.(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13. “三物白散 ○ 治寒實結胸. 桔梗貝母各三錢 ... 『入門』”)
- 44) 한편 『東醫壽世保元』과 『醫學入門』에 실린 三物白散에 대한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면, 의미상으로는 사실상 두 내용이 동일하지만 표현상으로 볼 때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東醫壽世保元』에는 三物白散의 복용법에 대해 ‘和勻白湯 和服’이라 서술되어

寒實結胸 條文의 내용을 기준으로 고찰한 결과와 三物白散의 출전을 기준으로 고찰한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 때 최종적으로 李濟馬가 寒實結胸 條文 및 三物白散을 『傷寒論』이 아닌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小陷胸湯 條文의 경우와 비교해봄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에 小結胸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앞서 寒實結胸과 마찬가지로 ‘龔信曰’을 제시함으로써 引用 출전을 『古今醫鑑』으로 밝혔다⁴⁵⁾. 그리고 小結胸에 사용하는 處方으로 小陷胸湯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小陷胸湯은 앞서 살펴본 三物白散과 마찬가지로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處方に 해당한다⁴⁶⁾. 하지만 李濟

馬는 앞서 三物白散을 『東醫壽世保元』의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기술한데 반해, 小陷胸湯의 경우에는 ‘元明 二代醫家 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이 아닌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에 기술하였다⁴⁷⁾.

이처럼 三物白散과 小陷胸湯이 모두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處方임에도 불구하고 『東醫壽世保元』에서 각기 다른 시대 및 서적의 處方 編制에 기술되었다는 점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다. 만일 李濟馬가 寒實結胸에 대한 내용을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張仲景이 아닌 龔信의 논술을 인용해 寒實結胸에 대해 서술했다 하더라도, 三物白散이 본래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處方인 만큼 小陷胸湯과 마찬가지로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에 기술했어야 한다. 하지만 李濟馬는 三物白散을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일단 李濟馬는 『傷寒論』의 寒實結胸 條文보다 『東醫寶鑑』에 실린 龔信의 논술이 더욱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傷寒論』이 아니라 『東醫寶鑑』에서 龔信의 논술로 기술된 寒實結胸 條文을 ‘의도적으로’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處方 또한 ‘의도적으로’ 『傷寒論』 원방이 아니라 실제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정된 후대의 處方을 인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李濟馬는 『傷寒論』이 아닌 후대에 기술된 醫書들에 실려 있는 三物白散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處方, 곧 『東醫寶鑑』에 『醫學入門』으로 출전이 밝혀진 三物白散을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處方 編制상으로도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이 아닌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三物白散을 기술하게 되었

있지만,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6. “三物白散 ... 右爲末 和勻白湯 和服半錢 弱人減半 或吐 或利不利 進熱粥一碗 利不止 進冷粥一碗”) 『醫學入門』에는 ‘白湯調服’이라 서술되어 있다. (南豐 李 梴 編纂, 精校編註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p.319. “爲末 每五分, 弱者減半, 白湯調服. 病在膈上必吐, 膈下必利, 若不吐利, 進熱粥半盞助之, 若吐利過, 進冷粥半盞止之. 治寒實結胸無熱證.”) 또한 『東醫壽世保元』에는 三物白散을 복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或吐 或利’로 기술되어 있지만, 『醫學入門』에는 ‘病在膈上必吐, 膈下必利’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에 실린 三物白散의 내용과 『東醫寶鑑』에 기술된 그것을 비교해보면 공교롭게도 ‘梴’과 ‘碗’의 차이만 있을 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1113. “三物白散 ... 右爲末, 和勻, 白湯和服半錢, 弱人減半, 或吐或利. 不利進熱粥一碗, 利不止進冷粥一碗. 『入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三物白散에 대해 李梴의 『醫學入門』에 기술된 處方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醫學入門』의 三物白散과는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분명한 대비가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 때에도 李濟馬가 『東醫寶鑑』에서 三物白散을 그대로 인용하여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하였으며, 출전 또한 『東醫寶鑑』에 기술된 그대로 李梴으로 제시한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

4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3. “龔信 曰... 小結胸 正在心下 按之則痛 宜小陷胸湯.”

46)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06.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則痛, 脈浮滑者, 小陷胸湯主之.”

4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98. “小陷胸湯 半夏製 五錢 黃連 二錢 五分 瓜蒌 大者 四分之一.”

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小陷胸湯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李濟馬는 小結胸 條文의 경우 『東醫壽世保元』에서 寒實結胸과 똑같이 『傷寒論』이 아닌 龔信的 논술을 인용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李濟馬는 小陷胸湯이 본래 『傷寒論』에 실려 있던 處方임을 근거로 하여 ‘元明 二代醫家 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이 아닌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에 기술하였다.

이처럼 小陷胸湯이 三物白散과 다른 기준으로 處方編制에 기술된 까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東醫寶鑑』에 기술된 三物白散의 출전은 ‘入門’인데 반해 小陷胸湯의 출전은 ‘仲景’으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곧, 醫史學的으로 볼 때 어떠한 서적에서 해당 處方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三物白散과 小陷胸湯이 기술된 『東醫壽世保元』의 處方編制를 살펴보면 處方に 따른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東醫寶鑑』에 기술된 해당 處方の 출전을 기준으로 三物白散과 小陷胸湯이 기술된 『東醫壽世保元』의 處方編制를 분석해보면 編制에 따라 일관성 있게 處方이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통해 李濟馬는 寒實結胸條文과 三物白散을 『傷寒論』 원문이 아닌 『東醫寶鑑』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음을 알 수 있다⁴⁸⁾.

48) 만에 하나 讀者 중에는 이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李濟馬가 小陷胸湯을 仲景의 處方으로 引用한 것은 『傷寒論』 이후 다른 서적에 기술된 小陷胸湯의 處方들과 『傷寒論』의 그것을 비교해본 결과 현실적인 면에서 『傷寒論』의 그것이 더 나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李濟馬가 仲景의 處方으로 引用한 小陷胸湯의 약물 용량이 小陷胸湯의 출전으로 밝힌 『傷寒論』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傷寒論』에 기술된 小陷胸湯의 약물 용량은 ‘黃連一兩 半夏半升 洗 瓜蒌實大者一梅’(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06, 107.)인 반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한 小陷胸湯의 약물 용량은 ‘半夏製 五錢 黃連 二錢 五分 瓜蒌大者 四分之一’(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98.)로서, 모든 약물의 용량 및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李濟馬가 『傷寒論』 원문 및 기타 小陷胸湯이 실려 있는 醫書들과 比較, 考察하는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傷寒論』에 기술된 小陷胸湯을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한 것은 아니며, 『東醫寶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한편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서 巴豆가 포함된 處方 6개를 따로 분류하여 마지막 부분에 나열한 후, 이에 대해 篇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확히 ‘巴豆 六方’으로 지목하여 서술하였다⁴⁹⁾. 그런데 寒實結胸에 사용하는 三物白散 또한 이 巴豆 六方に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李濟馬는 三物白散의 구성, 그리고 ‘巴豆’를 중심 약물로 하여 少陰人의 病證을 치료하는 三物白散의 작용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小陷胸湯과의 비교를 통해 考察한 결과와 함께 살펴볼 때, 李濟馬가 秦漢時代의 醫方治法에는 巴豆로써 大便秘燥를 다스리는 法이 없었다고 논술한 내용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李濟馬가 저지른 오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李濟馬가 『傷寒論』 원문을 통해 『傷寒論』을 직접 접하지 않고 『東醫寶鑑』을 통해 『傷寒論』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접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혹자는 李濟馬가 三物白散에 대해 寒實結胸, 곧 ‘大便秘燥’가 아닌 ‘結胸’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인식했었기 때문에 『傷寒論』에 기술된 三物白散에 巴豆가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秦漢時代의 醫方治法에 대한 논술을 그와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李濟馬는 三物白散이 寒實結胸을 치료하는 處方이긴 하지만 大便秘燥를 치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寒實結胸을 치료해내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곧, 李濟馬는 三物白散을 명백히 大便秘燥를 치료하는 處方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서 巴豆 六方に 대해 모두 巴豆 하나의 약력이기 때문에 다름이 없으며

小陷胸湯에 대해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引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75-676. “溫白元... 瘴疽丸... 三稜消積丸... 秘方化滯丸... 三物白散... 如意丹... 論曰 右巴豆六方 卽 古人之各自置方 各自經驗而此六方 同是一巴豆之力 則所用”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기술하였다⁵⁰). 하지만 실제 李濟馬가 巴豆 六方으로 제시한 處方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巴豆뿐만 아니라 大黃, 芒硝와 같이 少陰人에게 暎가 되는 약물들을 포함하여 기타 많은 수의 다양한 약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巴豆 六方 각각의 주치증도 寒實結胸과 積滯, 溫疫, 黃疸에 심지어 鬼祟까지 포함할 정도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경우 李濟馬가 언급한 巴豆와 같이 이 處方들을 모두 한 가지에 해당하는 處方들로 보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濟馬가 巴豆 六方を 실질적으로 모두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은, 李濟馬의 관점에서 볼 때 巴豆 六方이 사실상 巴豆 하나의 작용, 곧 巴豆의 大便秘燥를 치료하는 작용에 의지하여 다양한 종류의 病證들을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로 巴豆 六方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포함된 유일한 약물이 巴豆라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巴豆 六方 중 하나인 瘴疽丸을 분석해볼 수 있다. 瘴疽丸의 구성을 살펴보면 巴豆 이외에 大黃과 芒硝가 사용되었는데, 그 용량은 巴豆의 四錢보다 많은 一兩씩이다⁵¹). 여기서 瘴疽丸에 사용된 大黃과 芒硝는 少陰人에게 있어 殺人之藥에 해당하는 大承氣湯의 主劑이다⁵²). 따라서 大黃과 芒硝는 길으로는 巴豆와 같이 瀉下시키는 작용이 있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는 李濟馬의 관점에서 볼 때 巴豆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약물이다. 그리고 瘴疽丸에는 이처럼 巴豆와 대조적인 성질을 지닌 大黃과 芒硝가 巴豆

보다 배 이상 많은 용량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瘴疽丸을 구성하는 약물의 용량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瘴疽丸은 李濟馬가 지칭한 巴豆와 같이 巴豆 六方이 아니라 大黃과 芒硝를 중심으로 한 다른 處方群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濟馬는 瘴疽丸을 巴豆 六方に 포함하여 지목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處方 내의 巴豆의 용량이나 기타 약물들의 구성, 그리고 여러 주치증들을 고려하여 巴豆 六方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巴豆 하나만을 중심으로 하여 巴豆 六方を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李濟馬는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서 巴豆丹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巴豆丹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약물 없이 오직 巴豆 하나만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이는 앞서 李濟馬가 巴豆 하나만을 중심으로 하여 巴豆 六方에 대해 인식했던 것과 서로 通하는 것으로서, 李濟馬가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기술한 巴豆 六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巴豆丹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李濟馬에게 있어 三物白散이 포함된 巴豆 六方과 巴豆丹은, 사실상 三方義와 치료에 있어 목적하는 바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서 三物白散을 사용하는 證에 三物白散과 함께 혹 巴豆丹을 사용하도록 주문하였는데,⁵⁴ 이는 巴豆 六方과 巴豆丹의 方義가 어느 정도 通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일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李濟馬는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이처럼 巴豆 六方에서 유래했으며 사실상 方義가 서로 같은 巴豆丹을 少陰人 鬱狂證에서 大腸怕寒으로 ‘大便秘燥’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주문하였다⁵⁵).

5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p.675-676. “溫白元... 瘴疽丸... 三稜消積丸... 秘方化滯丸... 三物白散... 如意丹... 論曰 右巴豆六方 卽 古人之各自置方 各自經驗而此六方 同是一巴豆之力 則所用”

5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75. “瘴疽丸 茵陳 梔子 大黃 芒硝 各一兩 杏仁 六錢 常山 鱉甲 巴豆霜 各四錢 豆豉 二錢”

5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54. “論曰 右論 皆以張仲景大承氣湯 始作備而可用不可用之時候 難知 故 紛紜多惑而始知張仲景之不可信也 張仲景大承氣湯 元是殺人之藥而非活人之藥則大承氣湯 不必學論.”

5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0. “巴豆丹 巴豆 一粒 ... 巴豆 全粒 下利 半粒 化積”

5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64. “龔信曰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 論曰 右證 當用桂枝半夏生薑湯 赤白何烏寬中湯 三物白散 或用 巴豆丹”

5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이를 통해 앞서 李濟馬가 寒實結胸을 치료할 때 巴豆丹을 사용하도록 주문한 까닭은, 巴豆丹의 大便秘燥를 치료하는 작용을 통해 寒實結胸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三物白散이 寒實結胸을 치료할 수 있었던 까닭도 巴豆丹과 마찬가지로 大便秘燥를 치료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巴豆 六方 및 巴豆丹의 사용 方法을 분석하는 과정으로도 재확인할 수 있다.

李濟馬는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巴豆丹을 사용하여 大便秘燥에 1~2회 정도 下利를 시키도록 주문하였다. 그런데 李濟馬는 巴豆丹과 마찬가지로 巴豆 六方 중 一切의 氣와 積을 다스리는 秘方化滯丸과⁵⁶⁾ 寒實結胸을 치료하는 三物白散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서도 두 處方으로써 下利를 시키도록 주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秘方化滯丸에는 通利하고자 할 때 끓인 물로써 넘기게 하고 積을 없애고자 할 때에는 陳皮를 달인 물로 넘기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泄瀉를 그치고자 할 때는 冷水를 마시도록 하게 되어 있다⁵⁷⁾. 또한 이와 유사하게 三物白散도 복용 후 嘔吐나 泄瀉가 있을 수 있는데, 복용 후 下利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따뜻한 죽 한 사발을 먹게 하고 下利가 그치지 않을 때 식은 죽 한 사발을 먹게 하도록 되어 있다⁵⁸⁾. 여기서 秘方化滯丸과 三物白散에 서술된 내용들은 두 處方이 모두 下利를 시키고 積滯를 풀어내는 작용이 주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⁵⁹⁾, 李濟馬가 巴豆丹을

따뜻한 물로 넘기도록 주문한 것, 그리고 全粒을 사용하면 下利하고 半粒을 사용하면 化積하게 됨을 서술한 내용과⁶⁰⁾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도 李濟馬가 秘方化滯丸과 三物白散의 작용에 대해 巴豆丹의 그것과 같이 巴豆로써 下利를 유발시킴으로 腹胃를 通利시키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⁶¹⁾.

『東醫壽世保元』에서 秦漢時代 醫方治法에는 대이상 考察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便秘燥에 巴豆를 사용하는 법이 없다고 기술하였는데, 이 내용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 그리고 李濟馬가 단순한 착오로 이와 같은 오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결과 李濟馬는 실제로 이러한 논술을 정확한 사실로 믿고 기술하였음을 알 수

59) 실제로 『東醫寶鑑』 『雜病篇』 ‘下門’의 ‘促下法’에서도 “凡服利藥，久不利，則進熱粥一碗。若利過不止，進冷粥一碗。蓋藥熱則行，冷則止故也。仲景”(許浚 著，陳柱杓 校，東醫寶鑑，서울，법민문화사，2007. p.1012.)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秘方化滯丸이나 三物白散 모두 실제로 下利를 시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다양한 주치증들을 치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서울，集文堂，2005. p.680. “巴豆丹 ... 去穀取粒 溫水吞下 全粒或半粒 仍煎湯藥 以煎藥時刻 巴豆 獨行腸胃間 太平用力 然後 服湯藥則 湯藥 可以與巴豆 同行 通快腹胃 升提其氣也 再煎湯藥 大便通後 又連服之 巴豆 全粒 下利 半粒 化積”

61) 실제로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巴豆 六方 중 하나인 秘方化滯丸은 巴豆丹과 作用 및 適應證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사하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 巴豆丹의 작용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서 ‘通快腹胃’ 뿐만 아니라 동시에 ‘升提其氣’함을 밝혔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서울，集文堂，2005. p.680. “巴豆丹 ... 通快腹胃 升提其氣也 再煎湯藥 大便通後 又連服之 巴豆 全粒 下利 半粒 化積”) 그런데 李濟馬가 秘方化滯丸의 작용에 대해 기술한 내용에도 ‘有通塞之功 調陰陽 有補瀉之妙’라 하여(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서울，集文堂，2005. p.676. “秘方化滯丸 ... 此方 出於朱震亨丹溪心法書中 理一切氣 化一切積 久堅沈痼 磨之自消 暴積乍留 導之立去 奪造化 有通塞之功 調陰陽 有補瀉之妙”) 巴豆丹의 작용으로 밝힌 것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巴豆丹을 半粒만 사용할 경우 ‘化積’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秘方化滯丸의 주치증인 ‘化一切積’ 및 기타 오래된 積聚를 치료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도 李濟馬가 巴豆 六方과 巴豆丹을 사실상 동일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5. p.651. “論曰 此證 其人如狂者 腎陽因熱也 小腹硬滿者 大腸怕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腎陽因熱則當用川芎桂枝湯 黃香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大腸怕寒則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和解之 若外熱包裹冷而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遺患之弊則當用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峻補之”

5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서울，集文堂，2005. p.676. “秘方化滯丸 ... 此方 出於朱震亨丹溪心法書中 理一切氣 化一切積 久堅沈痼 磨之自消 暴積乍留 導之立去 奪造化 有通塞之功 調陰陽 有補瀉之妙”

5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서울，集文堂，2005. p.676. “秘方化滯丸 ... 欲通利則以熱湯下 欲磨積則陳皮湯下 欲止泄則飲冷水”

5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서울，集文堂，2005. p.676. “三物白散 ... 或吐 或利不利 進熱粥一碗 利不止 進冷粥一碗”

있었다. 왜냐하면 李濟馬는 巴豆가 포함되어 있으며 大便秘燥를 치료하는 것을 주작용으로 하여 寒實結胸을 치료하는 三物白散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處方을 『傷寒論』이 아닌 『醫學入門』에서 제시된 處方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李濟馬가 巴豆와 관련된 秦漢時代 醫方治法에 대해 이처럼 확실할 수 있었던 까닭은, 李濟馬가 직접적으로 『傷寒論』 원문을 통해 『傷寒論』을 접하지 못하고 『東醫寶鑑』에 인용된 傷寒 관련 내용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傷寒論』을 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李濟馬는 寒實結胸 條文을 宋元明 處方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으며, 巴豆와 관련된 秦漢時代 醫方治法에 대한 논술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한편, 李濟馬는 『傷寒論』과 함께 張仲景의 또 다른 저작인 『金匱要略』에 대해서도 원문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許浚이 『東醫寶鑑』에서 引用文의 출전으로 밝힌 내용들 중에는 ‘金匱’로 밝혀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東醫寶鑑』을 주된 인용문헌으로 삼아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한 李濟馬의 경우 張仲景이 저술한 『金匱要略』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金匱要略』에는 巴豆가 포함된 三物備急丸이 제시되어 있는데, 三物備急丸은 大黃, 乾薑, 巴豆 각 一兩씩으로 구성된 處方이다⁶²⁾. 곧 『金匱要略』의 三物備急丸은, 李濟馬가 秦漢時代 醫方治法에서 大便秘燥에 사용했던 약물로 제시한 大黃 뿐만 아니라 巴豆도 함께 포함된 處方に 해당한다. 따라서 三物備急丸은 李濟馬가 ‘宋元明 三代 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 ‘巴豆 六方’ 중 하나로서 충분히 제시할만한 處方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李濟馬가 巴豆 六方 중 하나로 제시한 瘴疽丸에는 三物備急丸과 같이 巴豆와 大黃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瘴疽丸의 용량을 살펴보면 巴豆霜 四錢의 배가 넘는

大黃 一兩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巴豆 六方’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三物備急丸의 경우 大黃과 巴豆가 각 一兩씩 동등한 비율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三物備急丸에는 瘴疽丸보다 少陰人에게 적합한 巴豆의 용량이 大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순히 巴豆의 절대량을 기준으로 분석해보아도 三物備急丸에 사용된 巴豆 一兩이 瘴疽丸의 四錢보다 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大黃과 巴豆 외에도 三物備急丸에는 少陰人의 裏病에 主劑로 사용되는 乾薑이 포함되어 있으며, 大黃 및 巴豆와 같은 양인 一兩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三物備急丸과 瘴疽丸의 약물 구성을 비교해볼 경우 瘴疽丸보다 三物備急丸이 少陰人에게 더욱 적합한 處方임을 알 수 있으며, 瘴疽丸보다 三物備急丸이 사실상 李濟馬의 ‘巴豆 六方’에 더욱 적합한 處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일 李濟馬가 『金匱要略』을 직접 접했다고 가정한다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巴豆 六方과 같이 巴豆를 중심으로 한 處方群에 三物備急丸을 포함하여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三物備急丸을 巴豆 六方 중 하나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가설과 반증에 설령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李濟馬가 『金匱要略』을 직접 접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三物備急丸은 張仲景이 저술한 서적인 『金匱要略』에 제시된 處方이며, 三物白散 또한 張仲景의 저서인 『傷寒論』에 제시된 處方이다. 따라서 두 處方 모두 秦漢時代의 處方に 해당한다. 한편, 三物備急丸에는 三物白散과 마찬가지로 處方 내에 巴豆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三物白散을 통해 秦漢時代 醫方治法에 대한 李濟馬의 논술을 考察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三物備急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곧 李濟馬가 만일 『金匱要略』을 직접 접해 三物備急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東醫壽世保元』에서 秦漢時代의 醫方治法에는 大便秘燥에 巴豆를 사용하는 法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李濟馬는 『傷寒論』과 마찬가지로 『金匱要略』 또한

62)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743. “三物備急丸方 大黃一兩 乾薑一兩 巴豆一兩去皮心熬外研如脂”

『金匱要略』 원문을 통해 직접 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金匱要略』에는 三物備急丸 외에도 九痛丸⁶³⁾이나 走馬湯⁶⁴⁾과 같이 巴豆가 포함된 處方을 몇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다⁶⁵⁾. 그리고 공교롭게도 『金匱要略』에 실려 있는 三物備急丸方과 九痛丸, 走馬湯은 모두 『東醫寶鑑』에서 발견할 수 없다⁶⁶⁾. 그러므로 李濟馬가 『傷寒論』 원문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東醫寶鑑』을 통해 접하였다는 점, 經文으로서 『傷寒論』을 우대하고 상대적으로 『金匱要略』을 경시했던 韓醫學의 풍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들에서 밝혀진 내용, 곧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모두 『東醫寶鑑』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들을 모두 고려해볼 때, 李濟馬는 『金匱要略』 또한 사실상 『傷寒論』과 마찬가지로 『東醫寶鑑』을 통해 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⁷⁾.

이상 『傷寒論』 및 『金匱要略』과 관련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근거로 할 경우, 대체로 李濟馬는 醫學과 관련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東醫寶鑑』을 통해 접하고 얻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傷寒論』과 『金匱要略』외에 李濟馬가 『東醫寶鑑』을 통해서만 모든 醫學을 접했다고 주장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傷寒論』 및 『金匱要略』과 관련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이외에 여타의 引用文들에서 각각의 서적별로 『傷寒論』 및 『金匱要略』과는 다른 상황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內經』과 관련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에서 二陽結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서 해당 내용의 출전을 『靈樞』로 제시하였다⁶⁸⁾. 그런데 본래 이 내용은 『素問』의 『陰陽別論』⁶⁹⁾과 『氣厥論』⁷⁰⁾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서, 『東醫寶鑑』에는 ‘消渴之源’ 하에 각각 두 개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연이어 기술되어 있다⁷¹⁾. 그리고 결정적으로 『東醫寶鑑』에는 이 내용들의 출전에 대해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靈樞’와 달리 모두 ‘內經’이라고만 밝혀져 있다.

6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83. “九痛丸 治九種心痛 九痛丸 附子三兩(炮) 生狼牙一兩(炙香) 巴豆一兩(去皮心, 熬研如脂) 人參 乾薑 吳茱萸各一兩”

64)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331. “走馬湯 杏仁二枚 巴豆二枚去皮心熬”

65) 九痛丸은 巴豆 이외에 附子, 生狼牙, 巴豆, 人參, 乾薑, 吳茱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生狼牙를 제외한 附子와 人參, 乾薑, 그리고 吳茱萸는 모두 少陰人 裏病의 吳茱萸附子理中湯에 포함되는 약물이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0. “吳茱萸附子理中湯 人參 白朮 乾薑炮 官桂 各二錢 白芍藥 陳皮 甘草炙 吳茱萸 小茴香 破故紙 各一錢 附子炮 一錢或二錢”) 따라서 九痛丸은 사실상 少陰人의 處方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九痛丸의 약물 구성은 단적으로 巴豆 六方 중 하나인 瘴疽丸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 거의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少陰人에게 적합한 약물들로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李濟馬가 『金匱要略』의 九痛丸을 『東醫壽世保元』에서 巴豆 處方의 하나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秦漢時代 醫方治法에는 大便 秘燥에 巴豆를 쓰는 법이 없었다고 논술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李濟馬는 『傷寒論』 뿐만 아니라 『金匱要略』의 경우에도 원문을 직접 접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66) 이는 앞서 『傷寒論』에서 처음 제시된 三物白散이 『東醫寶鑑』에서 『醫學入門』의 處方으로 제시됨으로써 李濟馬가 이를 宋元明時代의 處方으로 기술한 것과 정황상 유사하다. 곧, 『東醫寶鑑』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67) 만에 하나, 李濟馬가 오직 『東醫寶鑑』만을 통해서만 『金匱要略』을 접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李濟馬가 『東醫寶鑑』 이외에 기타 여러 서적들을 통해 『金匱要略』을 접했을 가능성도 미약하지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李濟馬가 『東醫寶鑑』 이외에 간접적으로 『金匱要略』을 접할 수 있었던 서적이 『金匱要略』의 내용을 온전히 포함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최소한 『金匱要略』에 기술된 巴豆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711. “靈樞 曰 二陽結 謂之消 飲一溲二 死不治. 註曰 二陽結 謂胃及大腸 熱結也.”

6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31. “二陽結謂之消”

7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40. “心移寒於肺, 肺消, 肺消者, 飲一溲二, 死不治.”

71)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398. “消渴之源 ○內經曰, 二陽結謂之消. 註曰, 二陽結, 謂胃及大腸俱熱結也. 腸胃藏熱, 則喜消水穀也... ○心移寒於肺, 爲肺消, 肺消者, 飲一溲二, 死不治. 註曰, 金受火邪, 肺藏消燼, 氣無所持, 故飲一而溲二也. 『內經』”

곧, 李濟馬는 해당 내용을 『東醫壽世保元』에 인용하는 과정에서 『東醫寶鑑』에서도 『素問』과 『靈樞』가 아니라 단순히 『內經』으로만 밝힌 출전을 『素問』과 『靈樞』 중 『靈樞』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李濟馬가 『靈樞』로 밝힌 내용은 해당 내용이 본래 『素問』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볼 때 엄밀히 말해 오류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기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중요한 사실은, 최소한 『內經』의 경우 李濟馬가 『東醫寶鑑』 이외에 참고할만한 별도의 『內經』 판본, 혹은 『內經』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醫書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李濟馬가 『東醫寶鑑』 이외에 『內經』과 관련하여 별도로 소장했던 서적은 李濟馬에게 있어 상당히 신뢰할만한 서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東醫寶鑑』은 李濟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醫書로서, 앞서 누차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東醫寶鑑』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東醫壽世保元』이 집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런데도 李濟馬는 『內經』과 관련하여 별도로 소장했던 서적에 근거하여 『東醫寶鑑』에도 『內經』으로 기술된 출전을 『靈樞』로 수정해 『東醫壽世保元』에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李濟馬가 『二陽結』에 관해 기술할 때 『東醫寶鑑』과 같이 『內經』으로 기술하지 않고 『靈樞』로 기술한 것은 『東醫寶鑑』 이외에 다른 『內經』 판본이나 醫書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하였거나, 혹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東醫寶鑑』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인용하였지만 출전에 있어서만은 별도로 소장했던 『內經』 판본, 혹은 『內經』 관련 醫書를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²⁾⁷³⁾ 그리고 실제로 전자가 아닌 후자의

경우를 따라 『二陽結』과 관련된 내용이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東醫寶鑑』에 『內經』으로 기술된 내용이 『靈樞』로 기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과정에 있어 『東醫寶鑑』 이외의 서적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李濟馬는 『東醫寶鑑』 이외의 서적을 통해서도 『內經』의 내용을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⁴⁾.

살펴본 바와 같이 李濟馬가 『東醫寶鑑』의 내용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이 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內經』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넘어 『東醫寶鑑』 이외의 별도의 『內經』 판본, 혹은 『內經』의 내용이 기술된 서적을 소장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73)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李濟馬가 소장한 별도의 『內經』 판본, 혹은 기타 『內經』 관련 서적에 실린 『二陽結』의 내용과 『東醫寶鑑』에 기술된 『二陽結』의 내용은 사실상 거의 같았을 가능성이 높다. 곧, 李濟馬가 별도로 소장한 『內經』 판본과 『內經』 관련 서적에도 『內經』에 실린 『二陽結』의 내용 뿐만 아니라 王冰의 註도 함께 실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4) 讀者 중에는 이와 같은 結論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讀者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전에 박성식이 자신의 引用文 관련 研究에서 『東醫壽世保元』에는 李濟馬가 『素問』과 『靈樞』에 대해 평가한 내용, 그리고 『東醫寶鑑』에는 포함되지 않은 『靈樞』 第64篇 『陰陽二十五人』과 第72篇 『通天』의 내용이 존재함을 지적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성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이외에 『內經』 및 기타 醫書들을 熟知한 상태에서 『東醫寶鑑』을 접했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단 이후에 제시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박성식이 지적한 내용들의 근거만 살펴보면, 엄밀히 말해 李濟馬가 원문을 직접 引用한 내용들이 아니며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히 평가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만으로 李濟馬가 『東醫寶鑑』 이외에 『內經』 관련 서적을 따로 접했다거나, 심지어 이를 먼저 熟知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단지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도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일례로 『醫源論』에 기술된 『素問』과 『靈樞』에 대한 李濟馬의 평가는, 별도의 『內經』 관련 서적 없이 儒學을 공부하면서 획득한 지식과 『東醫寶鑑』을 통해 접한 『內經』 관련 내용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李濟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東醫寶鑑』만을 근거로 寒實結胸 條文을 인용함으로써 龔信的 『古今醫鑑』에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의 출전을 『金鑑』으로 밝혔다. 이처럼 李濟馬가 인식한 『古今醫鑑』의 내용에는 실상 許浚의 개인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李濟馬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醫源論』에서 醫道復興에 해당하는 醫家로서 龔信을 꼽았다. 즉 이와 같이 醫史學的 평가를 내리는 것은,

72) 이에 대해 혹자는 상기 消渴과 관련하여 과연 李濟馬가 별도의 『靈樞』 판본, 혹은 『靈樞』로 출전이 밝혀진 내용이 포함된 서적을 소장했을 것인가에 의문을 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李濟馬가 『東醫寶鑑』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실수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여기서 제시한 消渴에 관한 내용만으로는 李濟馬가 별도의 『內經』 판본을 소장했다고 전적으로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박성식의 研究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 辨證論』에 기술된 『太少陰陽人』에 관한 언급은 『東醫寶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傷寒論』이나 『金匱要略』의 경우에는 앞서 바르를 통해

한편, 관찰 범위를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서 벗어나 病證論과 연관된 處方 編制까지 좀 더 넓은 범주로 확대해보면, 何人飲과 같이⁷⁵⁾ 『東醫寶鑑』 이후에 발간된 서적에 제시된 處方 또한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何人飲은 『東醫寶鑑』 이후에 발간된 서적인 『景岳全書』에서 제시된 處方으로서⁷⁶⁾, 『東醫寶鑑』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方藥合編』에도 『景岳全書』에 실린 何人飲의 분량 및 適應證이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⁷⁷⁾⁷⁸⁾ 그리고 시기적인 면을 고려할 때 당연하게도 『東醫寶鑑』에서는 何人飲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李濟馬는 『方藥合編』을 포함하여 『東醫寶鑑』 이후에 발간된 서적에서도 관련 내용을 접하고 引用함으로써 『東醫壽世保元』을 집필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의 『泛論』에는 朝鮮 後期에 민간에서 활용되던 醫學 관련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李濟馬는

『東醫寶鑑』이 발간된 이후의 시기, 곧 자신이 살았던 朝鮮 後期에 통용되던 의학 관련 내용들을 통해서도 體質醫學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의 거의 대부분을 사실상 『東醫寶鑑』에서 引用한 것은 옳지만, 모든 내용을 『東醫寶鑑』에서 引用했거나 『東醫寶鑑』만을 통해 醫學의 내용을 익힌 것으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향후 『東醫壽世保元』 引用文과 『東醫寶鑑』과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考察하기 위해서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引用文의 출전으로 밝혀진 각각의 서적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研究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內經』, 『傷寒論』, 宋元明 이후의 醫書들, 그리고 『東醫寶鑑』 이후에 발간된 서적과 기타 민간에서 통용된 醫學 및 醫書들로 분류하여 研究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객관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으나 해당 서적을 직접 접하거나 자세히 窮究하지 않았어도 『東醫寶鑑』에 실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李濟馬가 『四象人 辨證論』에서 『靈樞』의 『陰陽二十五人』과 『通天』의 내용과 관련 있는 체질 내용을 간략히 언급한 것 또한 李濟馬가 직접 『內經』을 접했기에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여타 다른 출처들을 통해 『內經』에 관해 간략히 정리되거나 평가된 내용을 접한 후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李濟馬가 실제로 『東醫寶鑑』 이외에 별도로 『內經』을 접했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李濟馬가 간략히 평가한 내용들이 아닌 引用文의 형태로 존재하는 내용들을 통해 직접 검증해보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論文에서는 ‘二陽結’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考察을 진행했음을 밝힌다.

7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81. “古方 何人飲 用白何首烏五錢 治瘧病”

76)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91. p.1284. “何人飲 二五 截瘧如神. 凡氣血俱虛, 久瘧不止, 或急欲取效者, 宜此主之. 何首烏 自三錢以至一兩, 隨輕重用之 當歸 二三錢 人參 三五錢, 或一兩, 隨宜 陳皮 二三錢. 大虛者不必用 煨生薑 三片, 多寒者用三五錢”

77) 黃度淵 著. 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92. pp. 190-191. “何人飲 截瘧如神 凡氣血俱虛 久瘧不止 或酒水相半煎 何首烏 三錢至一兩 人參 三五錢或一兩 當歸 二三錢 陳皮 大虛不必用 二三錢 煨薑三片多寒至三五錢”

78) 何人飲이 『景岳全書』에 실려 있다는 사실은 ‘河基泰.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主要醫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pp.16-17.’를 통해 學界에 발표되었다.

III. 結 論

본 論文에서는 지금까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에 적용되어온 方法論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며 더욱 심화된 研究가 진행될 수 있는 方法論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方法論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을 직접 고찰해 봄으로써 이와 같은 方法論의 당위성을 실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의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에는 대체로 문자적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 方法論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에 引用된 문장들이 본래 출전으로 밝혀진 서적보다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引用되었음을 밝혀내었다.
2. 향후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研究에 있어서는 기존의 문자적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 研究보다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로 한 研究가 더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문자적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상보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심화된 연구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秦漢時代 醫方治法에는 大便秘燥에 大黃을 사용하는 법은 있었으나 巴豆를 사용하는 법은 없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이 논술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李濟馬가 『傷寒論』 원문을 통해 직접 『傷寒論』을 접하지 못하고 『東醫寶鑑』에 기술된 傷寒 관련 내용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傷寒論』을 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李濟馬는 『傷寒論』과 함께 秦漢時代의 醫學 서적에 해당하는 『金匱要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향후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관련 연구에서는 李濟馬가 引用했던 서적들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각각 나누어 考察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東醫寶鑑』에서 발견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전과 處方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서적별로 引用過程과 구체적인 情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論文에서 제시한 結論들은 큰 틀에서 볼 때 이전에 진행되었던 문자적인 比較 研究에서 도출된 結論, 곧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이 『東醫寶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東醫寶鑑』을 중심인용 문헌으로 하여 『東醫壽世保元』이 저술되었다는 結論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전 研究들에서는 이러한 견해에는 이견 없이 동의하였지만, 세부적인 結論에 있어서는 李濟馬가 『黃帝內經』과 『傷寒論』 등의 醫書들을 미리 熟知한 상태에서 醫學的 經驗과 思想은 『東醫寶鑑』에서 얻었다는 주장과, 李濟馬가 『東醫寶鑑』을 통해 모든 관련 내용을 『東醫壽世

保元』에 引用하였으며 사실상 『東醫寶鑑』만을 보았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結論은 지금까지 내려지지 못한 상황이었는 데, 본 論文에서 三物白散과 巴豆를 중심으로 한 考察을 진행함으로써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경우 李濟馬가 이를 미리 접하고 熟知한 상태에서 『東醫寶鑑』을 접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東醫寶鑑』을 통해 간접적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접한 것이 분명함을 결론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인용 문헌들, 예컨대 『黃帝內經』과 『方藥合編』 등의 경우 引用 過程에서 『傷寒論』 및 『金匱要略』과는 달리 각기 다른 情況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앞서 살펴본 三物白散과 巴豆에 관한 考察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중 최소한 『傷寒論』 및 『金匱要略』에 관한 내용들을 研究할 경우에는, 『東醫寶鑑』에 실린 관련 내용들을 ‘심도 있게’ 研究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筆者가 三物白散과 巴豆에 관한 考察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시행하고자 노력했던 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引用文 研究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許浚이 『傷寒論』 및 『金匱要略』에 대해 기존의 견해와 다소 구분되는 자신만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條文들을 선별한 후 일부를 수정하고 재구성하여 『東醫寶鑑』에 기술하였으며, 李濟馬가 이처럼 원문과 비교해 수정된 『東醫寶鑑』을 통해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간접적으로 접했기 때문이다. 곧, 李濟馬가 접한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仲景의 그것이 아닌 許浚이 이해한 『傷寒論』과 『金匱要略』이기 때문에, 단순히 仲景이 제시한 견해들로 관련 내용들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傷寒論』에 관한 『東醫壽世保元』 引用文들을 살펴보면, 張仲景이 『傷寒論』에 기술한 내용들과 차이가 나는 동시에 許浚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 중 다소 극단적인 예가 바로 본 論文의 緒論에서 지적한 바 있는 甘草瀉心湯 條文의 ‘此乃結熱’이다.

한편, 『內經』 및 기타 서적들의 경우에도 사실상

『東醫寶鑑』의 내용 및 구성과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의 그것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단 『傷寒論』과 『金匱要略』 뿐만 아니라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전반에 걸쳐 研究를 진행할 경우에는 『東醫寶鑑』에 실린 관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考察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論文 이후에 진행될 내용에서는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와 더불어 『東醫寶鑑』의 관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研究가 왜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는지에 대해 실제 研究를 활용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筆者는 『東醫寶鑑』에 대한 심도 있는 研究가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있어 시작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筆者가 제시한 引用文 研究 方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앞서 진행한 考察들을 활용해 정리해 봄으로써 이상 본 論文을 마치고자 한다.

IV. 參考文獻

<논문>

1.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3. 5(1). p.8, 26, 32. pp.19-20.
2. 李壽瓊.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3. 이필우, 尹暢烈. 東醫壽世保元 引用文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4. 12(2). p.84. pp.76-77.
4. 허기희. 『東醫壽世保元』의 仲景引用文에 관한 研究 - 조문일치도 및 병증 비교를 중심으로. 尙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4. p.113.
5. 河基泰.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主要醫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pp.16-17.
6. 朴修玄, 丁彰炫, 白裕相, 張祐彰.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寒病論』의 赤石脂禹餘糧湯 條文에 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p.58-61, 63-67, 64-67.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5. p.648, 650, 651, 654, 659, 662, 664, 671, 675, 676, 680, 681, 683, 698, 711, 731. pp.652-653, 662-663, 675-676.
2. 송일병 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 3판 2권.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200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p.2.
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 출판부. 1985. p.31, 140.
4.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06, 107, 108, 116, 171.
5.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83, 331, 743.
6. 동의과학연구소. 東醫寶鑑 外形篇.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8. p.1060, 1088.
7. 許浚 著. 대한형상의학회. 東醫寶鑑. 경남. 동의 보감출판사. 2005. p.1099.
8. 許浚 著. 陳柱杓 校.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012, 1096, 1112, 1113, 1398.
9. 柯琴 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245.
10. 南豐 李 梴 編纂. 精校編註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p.319.
11.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284.
12. 黃度淵 著. 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92. pp.190-191.